

인생의 성공은 위대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에서 시작된다

출3:1-14

정확히 3년 전에 우한 폐렴 코로나 발병 시작, 3년 동안 창궐, 어려운 시절 보냈다.
나와 아내는 2022년 1월 시작되면서 발병, 폐가 많이 상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함
그러면서도 다시 회복해서 2022년 마무리, 요한 계시록, 잠언, 전도서 강해
교회도 성장함, 1,100명, 헌금도 작년 대비 10% 정도 늘었다는 보고
신학원생도(45+20=65), 목회자들 무료 성경 6,440권,
나뿐만 아니라 각종 어려움으로 고생하면서도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오늘 2023년 첫 날, 감사하게도 올해는 첫 날이 주일이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첫 날, 첫 시간을 따로 떼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일, 대단히 귀하고 아름답다.
오늘 < >, 인생이란 무엇이며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인생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부귀영화(자동차, 집, 핸드폰), 명예, 권세, 좋은
남편 아내, 자식들,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룬다(책, 음악, 노래, 대통령, 목사...)
다 좋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질주하는 능력이 있다.
지난해 잠언, 지금 전도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의 말

전1:2, 14, 해 아래에서=하나님 없이

1-10장까지 왜 헛된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10-11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11:9, 12:1, 12:1-7 모두가 죽는다.

인간의 의무 12:13-14

성경적인 성공: 인간의 의무를 다 하는 것

인간의 의무를 다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

성경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사람의 참된 성공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

악한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만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고전15:33, 속지 말라.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특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위대하게
될 수 있다. great는 대단히 아름다운 말

그분이 주시는 삶의 과제가 있다.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이루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 다 성공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분 앞에서 교만하게 굴던 자들: 다 망했다. 에서, 파라오, 발람, 아합, 헤롯, 가룟 유다
오늘은 이 가운데 모세의 사례를 보면서 위대하신 분을 만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겠다.

출애굽기 3장의 배경

창3:15 메시아 약속,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민족을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70명을 이집트로 보냄, 그 일을 위해 미리 요셉을 예비해서 총리가 되게 함

1장 요약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남,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집권(1:8)

이집트 사람들의 근심(9-10)

혹독한 속박, 노예 생활(11-12)

그럼에도 이스라엘 부흥, 결국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16)

메시아 씨를 말리려는 마귀의 계략

2장 요약

레위 가문에서 귀한 아이가 태어남(아버지 아르람, 어머니 요게벳, 출6:20)

그의 누이 미리암, 그의 형 아론

죽일 수 없어서 궤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둠(3)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구출함(6),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됨(10)

자기의 친어머니 집에서 자란 뒤 그는 이집트의 궁으로 들어가 이집트의 문물을 배움,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행7:22).

7:23, 그가 정확히 사십 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므로 그를 죽이고 묻어 버림(24)

다음날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 말리다가 살인한 것이 드러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함(26-29)

그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stranger)가 됨

십보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음, 40년이 지남,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3장에 기록됨

3장 요약

양치는 목자, 하나님의 산 호렵에서 양들을 먹임(1)

주의 천사, 불타는 떨기나무(2), 호기심(3)

주의 천사와의 만남,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5), 하나님 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숨김(6)

주님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하려 한다(7-9).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10)

모세의 반응(11)

하나님의 말씀(12)

모세의 요청(13)

하나님의 계시(14)

출3장: 미디안 땅에서 평범하게 지내던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소명을 받고 위대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의 배경을 보여 준다.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

네 가지 중요 요소를 살펴보려 한다.

1. 자신의 야망이 없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야망과 열정이 있었다. 내 힘으로 내 백성의 문제를 풀어 주어야겠다.

그래서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실패(행7:25).

목표는 매우 좋았다. 육신의 준비, 힘, 배경 매우 좋았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위대한 목표, 위대한 삶을 이룰 수 없다. 물론 그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전3:1)

그 뒤 그는 40년 동안 인생의 밀바닥에서 쓰라림을 맛보며 자기를 겸손히 낮추었다. 육신적 야망 포기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해 보아야겠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이 잘되든 못 되든 실패이다.

2.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수여할 때 비로소 그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시 그 때가 안 오면, 평범하게 그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내게 맡겨진 것 이상의 것을 꿈꾸지 말라.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유학 생활, 교수 생활, 목회, 성경 사역, 결혼,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무리하지 않았다. 예배당 건축, 자연스럽게, 왜? 내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실 것이다.

혹시 안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 교회 운영 다 이렇게 한다. 인생 경영 이렇게 해야 한다.

3.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곳은 거룩한 땅(3:5)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곳은 다 다르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지간에 그곳은 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 하나님만을 위해 특별히 따로 구분된 곳, 여기서 받은 소명은 다 거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려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신약 시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발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기로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다 성도가 된다. saint, 거룩히 구분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다.

목사만이 거룩한 자가 아니다. 이것이 침례 성도들, 성경 신자들의 소명 윤리이다.

4. 그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2570), 창1:1, 주로 하나님으로 번역됨, God
오늘 출3장에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가장 보편적인 이름, 6,823회 구약에서는 주로 LORD, GOD로 표기된다. 진하 고딕 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출3:13-14; 6:2-4).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나타내는 말.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 하야, 아셔, 하야 나는 나다. No!, 가장 유치한 번역 “I AM I”. 이러면 I am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1.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변하지 않는 분(창21:33, everlasting God),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계1:8)
2.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 레16장(속죄일)에는 12번 모두 여호와만 나옴. 여호와의 두 가지 속성은 공의와 거룩함이다.
3. 은혜의 하나님(창6:8; 출6:6)
4. 구속의 하나님(습13:9, 환난기)

전 세계 모든 성경이 LORD로 번역함,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출20:7) 구약성경의 LORD가 신약성경의 Lord이신 예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나와 아버지는 하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요8:58). (*)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개역성경 여호와, 그래서 더러 쓰는 경우가 있다. 큰 문제 없다. 단 성경 번역은 LORD를 써야 한다. <개역성경분석> 책을 읽기 바란다. (*)

5.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는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뒤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함

쉬운 일만 있지 않았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여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힘든 삶(민11:15)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같이 하며 참으면서 살며 직무를 수행하였다(히11:27). 즉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같이 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 아침,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삶의 목표가 바르게 쫓는가?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위대한 삶이다. 이렇게 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다.

내 삶의 의미, 목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란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